

어린이교육비평

Childhood Education Review

2021 Vol. 11. No. 2. pp. 71-105

<http://dx.doi.org/10.26834/kscice.2021.10.15.71>

영유아교육에서 관찰과 기록의 차이 탐구:
영유아 관찰,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의 기록,
개정 누리과정 놀이 관찰과 기록을 중심으로

박보영(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박사과정 수료)

정선아(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영유아교육에서 관찰과 기록의 차이 탐구: 영유아 관찰,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의 기록, 개정 누리과정 놀이 관찰과 기록을 중심으로

박보영* · 정선아**

《요약》

본 연구는 그동안 영유아교육에서 이루어져 온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 간에 차이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 관찰,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의 기록작업,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의 목적, 내용, 방법, 활용의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 관찰은 영유아의 발달을 선결정된 틀에 따라 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형식적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영유아 관찰은 곧 영유아 평가로 여겨지며 영유아의 발달을 위해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의 기록작업은 열린 마음으로 영유아의 학습 과정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서, 영유아의 사진, 글, 그림 등과 같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여 이미지화 하고, 영유아, 동료 교사, 부모와의 소통, 그리고 교사 성찰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은 사건으로서 영유아의 놀이(배움)를 포착하고 의미 짓는다. 놀이 관찰과 기록의 행위주체성을 인정하며, 놀이 관찰과 기록이 교사에게 작용하여 영유아를 이해하고, 교육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실행 그 자체로 바라보고 있다. 본 연구는 영유아 관찰,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의 기록작업,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놀이 관찰과 기록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놀이 관찰과 기록(Observation and Document of Play), 2019 개정 누리과정(2019 National Nuri Curriculum), 레지오 에밀리아 기록작업(Reggio Emilia Documentation), 영유아 관찰(Observation of Children)

※ 논문투고: 08.15 수정본 접수: 09.23 게재 승인: 10.01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박사과정 수료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교신저자: chung78@sookmyung.ac.kr)

I. 들어가며

2019 개정 누리과정(이하 개정 누리과정)과 제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하 4차 표준보육과정)의 시행으로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를 기록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자율성으로 여겨지며 중요해졌다. 개정 누리과정과 4차 표준보육과정은 교사가 놀이 기록을 하는 목적을 영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이해하는 것으로 본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보건복지부, 2020).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이해하기 위해 영유아의 “말, 몸짓, 표정 등에서 드러나는 놀이의 의미와 특성에 주목하여 이 중 필요한 내용을 메모나 사진 등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54). 그리고 놀이 기록의 형식은 자유롭게 변경가능하다. 교사들은 영유아의 놀이와 배움의 의미를 찾고, 이를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놀이이해자료집, 놀이실행자료집, 누리과정 현장 지원자료 ‘관찰기록 안내서(관찰을 관찰하다)’, ‘관찰 기록을 담다’ 등 놀이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들이 제작, 배포되고 있다. 특히 해설서의 교육 내용은 놀이 기록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유아의 놀이를 통해 교육 내용을 이해하도록 방식으로 바꾸어 교사의 놀이 기록이 유아의 배움을 포착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기존의 교육내용은 활동을 통해 유아에게 학습되도록 하는 방식이었으나, 유아의 놀이에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이 담겨있으므로 유아의 놀이를 기록하는 것이 유아의 놀이가 곧 배움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이해자료집은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에서 질문이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배움의 의미를 포착하게 됨을 보여주며, 다양한 기록의 방식이 담긴 사례집이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b). 뿐만 아니라 놀이실행자료집은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으로서 놀이 기록을 강조하고 있으며(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c), 누리과정 현장 지원자료인 ‘관찰기록 안내서’는 기록을 하는 교사들이 처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0). 예를 들어, “도대체 무엇을 봐야 할까”, “이런 것도 기록일까” 등과 같은 교사들이 갖는 의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며 놀이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정 누리과정과 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놀이 기록¹⁾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양한 자료를

1) 본 연구에서 개정 누리과정과 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말하는 놀이 기록은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이라고 축약하여 사용한다.

제작 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관찰’, ‘기록’이라는 용어는 교사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경화 외(2020)의 연구를 보면 교사들이 관찰하고 기록하는 내용이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 “유아별, 그룹별 놀이 모습”, “놀이, 활동, 문제 행동 및 갈등 상황”, “또래 갈등상황”, “고른 발달을 위해 필요한 부분” 등으로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범위가 넓은 것을 알 수 있다(이경화, 구옥선, 김미진, 김병만, 김성숙, 류주영, 박지영, 서보순, 손유진, 이진희, 정혜영, 홍성희, 최고은, 2020, 53~57). 기록의 내용은 영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놀이,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또한 교사들은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며 특별한 주의 지도가 필요한 몇몇의 영유아에게 편중된 놀이 기록을 하고 있었다(이경화 외, 2020). 교사들은 기록을 하는 방식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교사들은 놀이 기록을 하는 어려움으로 놀이 기록은 객관적이고, 개별 기록이어야 하며, 반드시 글로 남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김은숙, 한미라, 2009; 박소연, 2017; 이경화 외, 2020). 즉, 교사들은 영유아의 ‘무엇’을 관찰하고 기록해야 하는지 혼동하며 자신의 이해에 따라 관찰하고 기록하는 범위가 다양하며, 관찰과 기록의 의미에 대한 혼동이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동은 이전부터 영유아 관찰,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이하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documentation)에서도 같은 용어인 ‘관찰’, ‘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개정 누리과정과 4차 표준보육과정이 실행되기 이전 교사들은 ‘영유아 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영유아를 관찰하고 기록해왔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교육의 다른 한 축에서는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며 기록작업을 시도하여왔다(정선아, 2015; Chung, Park & Kim, 2017). 이 과정에서 기록작업은 북유럽 국가의 교육적 기록작업(pedagogical documentation)과 동일시되며 우리나라에서 구분 없이 적용되었다.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교육적 기록작업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현실에서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도 관찰과 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찰과 기록은 각자의 이해 수준에 머물게 되며, 혼동이 발생된 것이다.

영유아 관찰은 규준에 따른 객관적인 관찰을, 기록작업은 영유아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경청으로서 관찰과 기록을 의미하여왔다. 또한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은 영유아의 배움을 포착하고 교육과정 실행의 의미를 담는 것으로써 관찰과 기록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영유아교육에서 기록 관련 연구들은 영유아 관찰, 기록작업과 교육적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의 차이를 밝히지 않고 이루어져왔다. 영유아 관찰

관련 연구는 대부분 영유아의 발달을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해 영유아 관찰을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김경숙, 강은영, 2020; 김태인, 유은영, 2010; 나귀옥, 김경희, 2012; 송연숙, 2019; 신나리 오정순, 2013; 정윤진, 장세라, 고은혜, 박병기, 2016). 기록작업과 교육적 기록작업에 대한 연구는 크게 기록작업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한 연구(김희연, 2008; 오문자, 1997; 유혜령, 2012), 기록작업을 소통의 도구로 활용한 연구(김희연, 정선아, 오문자, 2005), 기록작업을 하는 교사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김경철, 김안나, 2009; 김보은, 2014; 김은희, 2011; 2012, 노연서, 2018; 임진영, 박선희, 2010; 정효진, 배지희, 2019)로 구분할 수 있다. 기록작업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한 연구들은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을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오문자, 1997),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김희연, 2008), 그리고 해석학적 텍스트(유혜령, 2012)로 여기며 기록작업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그러나 그 외의 연구들은 대부분 기록작업을 하는 교사들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사의 성찰과 반성의 도구로서 기록작업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개정 누리과정이 시작된 후 놀이 기록에 관한 연구는 영유아 평가의 대안(이진희, 2020)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 관찰, 레지오의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서로의 차이를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용어로만 설명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 누리과정과 4차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된 후 교사들이 현장에서 놀이 관찰과 기록을 교육과정으로 실행하고 있으므로 영유아교육에 혼재되어 있는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교육적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의 차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 교육에서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의 차이를 관찰과 기록의 목적과 내용, 방식, 활용의 측면에서 밝히는데 있다. 이는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같은 용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이들을 비교할 기준을 세웠다. 먼저, Fawcett와 Watson(2016)이 관찰

의 역사를 기술할 때 사용한 관찰의 목적과 내용을 구분하여 분석한 방식을 차용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관찰과 기술의 내용과 방법(이경화 외, 2020)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논문에서 관찰과 기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 있기에 활용의 측면에서도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본 논문은 1) 각 관찰과 기록의 목적과 내용, 즉 무엇을 왜 관찰 기록하고, 2) 관찰과 기록의 방법 즉, 어떻게 기록하는지, 3) 관찰과 기록의 활용, 즉 기록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3가지 측면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는 영유아교육에서 관찰과 기록에 관한 서적과 논문이다. 관련 서적은 영유아 관찰이나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에 대해 설명하거나 실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논문은 Riss에서 ‘영유아 관찰’, ‘기록작업’, ‘놀이 기록’, ‘관찰’, ‘기록’ 등의 키워드로 대상 논문을 찾고, 각 내용에서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의 지칭 여부를 파악하여 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서적 20권, 논문 48편이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위의 3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논문의 결과를 구성하였다. 먼저, 각 관찰과 기록이 시작된 시대적 배경을 확인하여 그 시행 목적을 찾았다. 또한 각 관찰과 기록의 목적에 따라 ‘무엇’을 관찰하고 기록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각 관찰과 기록의 방법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찰과 기록의 방법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찾았다. 제시된 예시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형식은 제시되어 있는지, 작성된 것과 작성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찰과 기록을 어떻게 활용할지 제안하는 자료를 분류하여 각 관찰과 기록의 활용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Ⅲ. 영유아 관찰,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의 기록작업,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관찰과 기록에서 관찰과 기록의 의미

1. 영유아 관찰: 객관적 관찰과 평가의 도구

그동안 영유아교육에서 기록은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영유아 관찰이었다.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을 하면서도 교사들은 영유아 관찰과 혼동하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영유아 관찰의 목적과 내용, 관찰 방법, 활용의 측면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찰의 목적 및 내용: 규준에 따른 영유아의 상태 설명

영유아 관찰의 목적을 논하기 전 먼저 영유아 관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유아 교육에서 오랜 시간 행해져 오던 영유아 관찰의 시작은 19~20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세기부터 시작된 아동 발달에 대한 관심은 19~20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G. Stanley Hall의 ‘아동연구(child-study)’로 이어졌다(정선아, 2001; Fawcett & Watson, 2016). Hall은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아동 발달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관점을 세웠다(정선아, 2001).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연구에서 영유아 관찰은 영유아를 실험실과 같이 통제된 환경에서 행동을 관찰하며 이를 객관화, 사실화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유혜령, 1997; Fawcett & Watson, 2016). Hall은 아동의 자연스러운 발달이 어떻게 학습과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였으며, 이는 영유아의 발달을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가르쳐야 한다고 봄으로서 아동에 대한 과학적 관찰이 교육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유아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선아, 2001; Dahlberg, Moss, & Pence, 2013/2016).

영유아는 자연스럽게 정해진 발달 단계에 따라 성장하며, 이 정해진 발달 단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정선아, 2001; Fawcett & Watson, 2016). 따라서 영유아가 현재 어떠한 발달 상태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다. 교사들은 영유아가 과학적 규준에 맞추어 성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관찰하였다(유혜령, 2012). 관찰의 결과에 따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였다(김경숙, 강은영, 2020; 김태인, 유은영, 2010; 정선아, 2001; Knauf, 2015).

영유아의 관찰은 인지, 정서, 사회, 신체 등 선결정된 발달 기준에 기초하여 영유아의 상태를 파악하였다(김희진, 박은혜, 이지현, 2018; 임부연, 곽승주, 권혜진, 김성숙, 서보순, 손은실, 신은미, 연희정, 염지숙, 오채선, 윤민아, 이경화, 이연선, 이현진, 장혜진, 정선아, 2021; 이경화 외, 2020; Dahlberg, et. al., 2013/2016; Lenz Taguchi, 2010/2018). 미국의 유아교육협회에서는 이에 따라 발달에 적합한 실재(DAP)를 만들어 영유아를 관찰, 평가하고 교육하도록 제안하였다(Dahlberg, et. al., 2013/2016). 우리나라 역시 DAP의 영향을 많이 받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과 제 3차 표준보육과정의 내용과 내용 요소에 맞추어 영유아의 발달을 관찰하고 영유아의 학습을 평가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유혜령, 2012; 정윤진 외, 2016).

영유아 관찰은 영유아를 기준에 맞추어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영유아에 대한 '이해'라고 여겼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황해익, 2015). 기준에 따른 영유아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교육을 통해 그 다음의 단계로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유아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왔다. 따라서 영유아의 현재 상태가 자신의 연령 기준보다 위에 있는지 아니면 보통인지, 발달이 늦진 않은지 확인하는 것을 곧 영유아에 대한 이해라고 하였으며, 관찰의 목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이해가 아닌 영유아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유혜령, 1997, 2012, 2021a). 영유아를 고정된 규칙성이나 보편적 원리를 적용하여 파악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던 것이다(유혜령, 1997; 이진희, 2020). 또한 영유아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모두 기준에 맞추어 단순화 시키고 통제하려고 하였다(유혜령, 2021a; Lenz Taguchi, 2010/2018). 관찰의 목적은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발달을 학습의 내용으로 삼기 위함이었으며, 관찰의 내용은 발달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2) 관찰 방법: 객관적 관찰과 형식화된 기술

영유아 관찰은 아동을 선결정된 발달 단계의 틀에 맞추어 진단하고 분류한다. 영유아의 행동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찰과 기술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형식을 체계화 하였다(Fawcett & Watson, 2016). 영유아 관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객관적 관찰이다(김희진 외, 2018; 안부금, 김평호, 2017). 교사 자신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영유아를 관찰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교사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느낌을 제

외한 영유아의 말과 행동만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도록 훈련받아왔다.

또한 교사는 개인적 경험, 평가, 느낌 등이 관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리 관찰할 주제를 정하고, 그에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객관적으로 관찰하였다(김희진 외, 2018). 선결정된 발달 단계에 따라 영유아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 관찰 방식은 ‘표본식 기술’, ‘일화 기록’, ‘시간 표집법’, ‘사건 표집법’, ‘평정척도법’, ‘체크리스트’ 등이다(김희진 외, 2018). 이처럼 영유아 관찰은 객관적으로 관찰한 내용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형식화하여 이를 그대로 따를 것을 제안한다. 다음 그림 1과 그림 2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였던 영유아 관찰의 형식과 영유아 관찰을 설명하는 서적에서 제시한 영유아 관찰 중 일화 기록의 한 예시이다.

담임	원장

〈영유아 관찰 및 평가 기록〉 *영유아 개별 마련하여 사용
※ 영아는 월 2회, 유아는 월 1회 작성

반명	이름	생년월일
----	----	------

월	관찰내용 및 평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의 내용이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십시오.

〈부모 개별 면담 기록〉

상반기

일시	2017. 04. 02.	대상	000 어머니	면담자	000 교사
부모의견					
교사의견					
면담결과					

[그림 1] 영유아 관찰 형식

관찰 아동: 채 승 미 송 은 실	생년월일: 2016년 5월 8일 (남·♂) 2016년 11월 10일 (남·♂)
관찰 일: 2020년 9월 16일	관찰 자: 김 언 경
장 면: 등원 시간에 엄마와 떨어지기(오전 8:55)	
기 록: 은실이가 교실 문 앞에서 엄마의 무릎을 잡고 울고 있다. 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승미가 책을 놓고 은실이에게로 다가온다. 눈물을 닦아 주며 “괜찮아?” 하고 묻는다. 은실이가 승미를 쳐다보며 눈물을 그치자 승미가 은실이의 손을 잡아 준다. 은실이의 엄마가 교실을 떠난다.	
관찰의 초점: 은실(엄마와 떨어지기), 승미(친사회적 행동)	

[그림 2] 영유아 관찰(일화 기록) 예시

출처: 김희진 외(2018).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관찰. p38에서 발췌

영유아 관찰은 그림 1에서처럼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 연탐구 영역”이 선결정된 내용으로 존재하고, 이에 따라 영유아의 상태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관찰할 것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그림 2에서처럼 영유아의 발달이 드러나는 상 황을 교사의 이해 즉, 교사의 느낌과 사고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객관화된 관찰이 곧 기록이다. 즉 객관적 시선을 가진 관찰자의 관점에서 기록 되므로 관찰이 곧 기록이 된다. 따라서 영유아 관찰에서 기록이라는 용어는 중요하지 않 고, 관찰이라는 용어로만 사용되게 된다.

따라서 영유아 관찰을 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객관적 관찰을 하는 기술, 사실대로 본 것을 그대로 적는 능력이다. 교사는 영유아를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기술, 영 유아를 관찰하는 목적에 따라 가장 적합한 관찰의 기술 방식을 선택하고 관찰을 문장화하 는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였다(김희진 외, 2018; 안부금, 김평호, 2017). 이에 따라 교사 는 자신의 주관적 해석이나 의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준에 따른 제 3자의 시선으로 관찰 하고 기술하는 기술의 습득이 필수였다.

3) 관찰의 활용: 영유아의 발달 평가 및 교육 계획

영유아 관찰은 가장 대표적인 영유아 평가 도구였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총

론에서 ‘유아 평가’는 주로 관찰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적시하여(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34), 영유아 관찰이 곧 영유아 평가와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관찰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영유아 관찰을 영유아 평가, 평가 체계, 평가의 내용, 방법 양식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나귀옥, 김경기, 2012; 송연숙, 2019; 신나리, 오정순, 2013). 즉, 영유아 관찰은 영유아의 발달을 평가하는데 활용되는 것을 넘어서, 발달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영유아 관찰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누리과정의 내용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힌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즉, 영유아 관찰은 영유아를 평가하고 정상화(standardization) 할 수 있도록 관찰 결과에 따라 처방을 내리게 된다(Knauf, 2015). 영유아를 목적에 맞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유아를 정상화하거나 혹은 더 발달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영유아 관찰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준을 가지고 영유아의 발달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으로 영유아 평가와 동일시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2.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의 기록: 경청, 소통, 성찰의 기록작업 (documentation)과 교육적 기록작업(pedagogical documentaion)

이탈리아 북부의 레지오 에밀리아 지역에서 Loris Malaguzzi에 의해 시작된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은 실증주의, 발달심리학에 대항하는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았다(Edwards, Gandini & Forman, 2006). 이들은 실증주의와 발달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기준에 따른 영유아 관찰이 아닌 기록작업을 교육과정 실행에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레지오 교육에 영향을 받은 북유럽의 나라들(대표적으로 스웨덴)은 교육적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교육적 기록작업(pedagogical documentation)을 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레지오²⁾ 교육의 기록작업과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적 기록작업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육적 기록작업은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근간은 같다고 볼 수 있으나 관찰이나 기록의 활용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교육적 기록작업을 비교하며 관찰과 기록의 목적과 내용, 방식,

2)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을 이하 레지오 교육으로 칭함.

활용을 밝히고자 한다.

1) 기록작업의 목적과 내용: 영유아의 학습 과정 이해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은 영유아를 ‘설명’해오던 것에서 ‘이해’로의 이행이다. 기존 영유아 관찰에서 규준에 맞추어 영유아의 상태를 설명하고자 객관적으로 관찰하였다면, 기록작업은 영유아를 이해하고자 그들에게 귀 기울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유혜령, 2012). 이러한 차이는 영유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온다. 영유아 관찰은 영유아를 평가하고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면(김경숙, 강은영, 2020), 레지오 교육은 영유아를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유능한 존재로 본다(Edwards, et. al, 2006). 따라서 영유아는 설명해야 하는 대상에서 이해해야 하는 대상으로 그 인식이 변화된 것이다.

레지오 교육에서 교사는 영유아가 어떻게 놀이하는지,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경험을 하는지 등 영유아의 학습 과정을 이해하고자 귀 기울인다(Edwards, et. al., 2006). 이를 레지오 교육에서는 ‘경청’이라고 한다. 경청은 하나의 은유로 단지 영유아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를 볼 때, 열린 마음으로 온 감각을 이용해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Rinaldi, 2006/2017). 또한 경청은 나의 생각이나 편견 등을 내려놓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영유아의 관점에서 이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유혜령, 2012; Project Zero & Reggio Children, 2005). 즉, 영유아 관찰에서 하나의 규준에 따라 영유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반적 규준뿐만 아니라 성인의 편견과 관점으로 영유아를 바라보는 것을 모두 거부한다.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은 오직 영유아의 시선에서 이들의 학습 과정을 이해하는 교사의 실천이다.

레지오의 기록작업은 영유아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유혜령, 2012).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장면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을 기록한다. 따라서 기록자가 판단하는 순간, 즉 기록자의 경험, 인식, 의문 등이 기록에 담길 수밖에 없다(Rinaldi, 2006/2017; Project Zero & Reggio Children, 2005; Van Manen, 2002/2012). 이처럼 기록작업을 통해 영유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규준이나 성인의 편견을 내려놓고 영유아를 바라보며, 기록하는 사람의 주관적 해석이 포함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주관적 해석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의 주관적 해석은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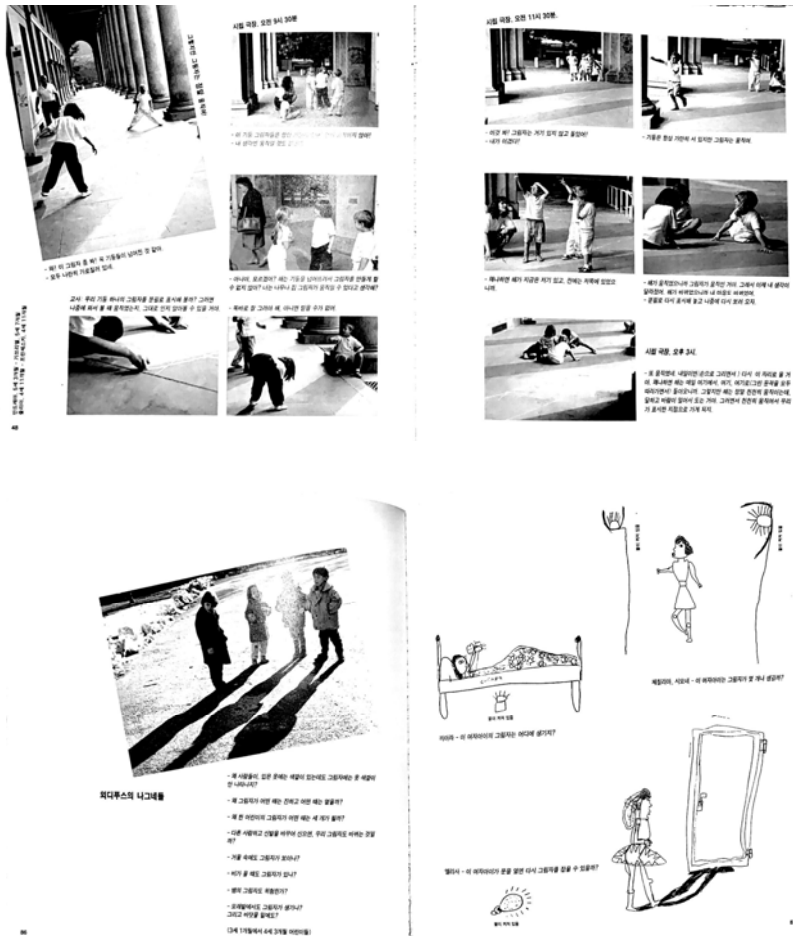
최근 레지오의 기록작업은 북유럽의 ‘교육적 기록작업’으로 그 의미가 더해진다. 북유럽의 ‘교육적 기록작업’은 ‘발현적 귀 기울이기’로 설명된다. 귀 기울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자신이 열려 있다는 것이며, 그들에게 내가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음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다(Davies, 2014/2017, 17). 즉, 경청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이 만남으로 인해 서로가 변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Davies, 2014/2017). 이는 레지오 교육에서 말한 경청을 넘어서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를 Davies(2014/2017)는 ‘발현적 귀 기울이기’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것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생성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발현적 귀 기울이기는 “거기 함께 있다”는 것이며 함께 “길을 잃는 것”이다(Schulte, 2013; Davies, 2014/2017, p.63에서 재인용). 교사는 주체이고, 영유아는 객체가 되어 관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체가 되기도 하고, 객체가 되기도 하며 그 상황에 함께 하는 것이다. 교사와 유아는 그 상황에서 함께 하며 고정되어 있지 않은, 불안한 것을 즐기며 변화해 간다.

더불어 교육적 기록작업은 영유아를 이해하는 것을 교사의 윤리적 실천으로 여긴다(Dahlberg, et. al., 2016; Lee-Hammond & Bjervås, 2020). Dahlberg와 그의 동료들(2016)은 교육적 기록작업을 “만남의 윤리”로 의미 짓는다. 만남의 윤리란 개별 영유아에 대한 존중, 차이를 인정하며 동일성의 원리로 영유아를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는 윤리이다. 다시 말하면, 영유아를 하나의 기준, 틀에 맞추어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고, 영유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이 영유아를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귀 기울이는 경청이라는 의미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윤리는 영유아의 차이에 대한 인정 뿐 아니라 교사의 의미 해석의 차이도 존중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북유럽의 교육적 기록작업은 영유아를 관찰하여 이해한다는 것은 기준에 맞추어 영유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영유아의 시선에서 이들의 경험과 배움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청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영유아를 경청함으로써 인해 교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영유아의 행위를 바라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발현적 경청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록작업과 교육적 기록작업에서 관찰과 기록은 영유아를 이해하는 것 즉 영유아의 배움을 이해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실천임을 목적으로 하고 관찰과 기록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

2) 기록작업의 방법: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이미지(Image)와 작성하지 않는 교육적 실천

기록작업은 사진, 녹음, 동영상, 영유아의 작품, 글 등 다양한 언어가 사용된다(김희연, 2008; 유혜령, 2012; Rinaldi, 2006/2017). 글로만 영유아의 상태를 설명하였던 영유아 관찰과 달리 기록작업은 이미지를 통해 말한다(Turner & Wilson, 2009; Vecchi, 2010). 기록작업은 교사가 이해한 영유아의 학습, 경험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다음 그림 3은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 중 하나이다.



[그림 3]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 중 일부

출처: Reggio Children(2002), 개미 빼고 모든 것에 그림자가 있어요(오문자 역), 서울: 다음세대, p48~49, p86~87에서 발췌

위와 같이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은 영유아의 놀이 모습이 담긴 사진, 영유아의 말, 놀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작품(그림)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렇게 영유아의 학습과정을 오직 글이 아닌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글만을 쓰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Turner & Wilson, 2009; Vecchi, 2010). 이러한 이미지들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Turner & Wilson, 2009). 뿐만 아니라 기록작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표정, 행동 등을 보다 주의 깊게 볼 수 있게 하며, 그 상황에 빠져들게 한다(Turner & Wilson, 2009; Vecchi, 2010). 즉, 이미지로서 기록작업은 영유아의 학습 과정에 대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영유아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미지로서 기록작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교사들은 기록을 쉽게 시도하지 못하였다. 교사들은 기록작업을 할 시간이 부족하거나(정효진, 배지희, 2019; Rintakorpi, 2016) 기록을 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기록작업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으며(Rintakorpi, 2016), 기록작업을 실행하지 못했다. 즉, 사진, 글, 그림 등을 이미지로 만들어 영유아의 학습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 교사들에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던 것이다.

레지오 교육은 기록작업을 관찰, 해석, 기록하며 영유아를 ‘이해’하는 것으로 바라보며 교사의 주관성을 인정한다. 또한 기록작업을 통한 교사의 성찰과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Project Zero & Reggio Children, 2005). 하지만 기록작업에 교사 개인의 성찰과 교육적 실천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전술하였듯이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은 대부분 영유아의 말, 사진, 글 등을 통한 영유아의 학습 과정만이 드러나 있다. 영유아가 학습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어떤 지원을 했는지 등과 같은 교사의 교육적 실천은 작성되지 않는다.

다만 레지오 교육은 짧은 기록작업(Vecchi(2010)는 이를 미니 스토리라고 칭함)이 매일 축적됨으로써 드러나는 교사의 해석을 기록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책자의 앞부분에 실을 뿐이다. 그 외 교사의 교육적 실천은 영유아의 학습과정 안에 숨어져 이를 읽는 독자의 영역으로 남겨둔다. 이는 레지오 교육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교육적 행위를 이론화 하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레지오 교육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두 교사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Edwards, et. al., 2006). 하지만 전적으로 교사의 교육적 실천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 교사가 어떠한 교육적 실천을 했는지 의문으로 남게 된다.

3) 기록작업의 활용: 소통과 성찰(reflection)의 도구

기록작업과 교육적 기록작업은 그 활용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기록작업은 소통을 강조한 반면, 교육적 기록작업은 교사 성찰(reflection)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기록작업은 영유아 놀이에서 드러나는 학습 과정을 가시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에 귀 기울이고, 놀이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세심히 살핀다. 이것이 전술한 영유아에 대한 '이해'이다. 그런데 영유아의 놀이가 끝나면 학습의 과정 등이 흘러가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Turner & Wilson, 2009).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의 학습 과정은 그 놀이가 이루어진 그 상황이 아니면 접할 수 없고, 교사의 기억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레지오 교육의 교사들은 영유아의 학습 과정을 글, 사진, 영상, 영유아의 작품, 그림 등 다양한 언어로 남겨두는 것이다(김희연, 2008; Rinaldi, 2006/2017; Project Zero & Reggio Children, 2005; Vecchi, 2010). 기록작업은 흘러가버리는 학습 과정을 기억이 아닌 실재하는 것으로 만든다.

레지오 교사들은 영유아의 학습 과정을 기록하여 해석 가능한 자료로 만든다(Rinaldi, 2006/2017). 교사들은 자신의 기록작업을 보며 그 당시 상황을 접하게 되고 영유아의 학습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을 한다. 또한 레지오 교육에서 기록작업은 해석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해석 그 자체이기도 하다(Rinaldi, 2006/2017). 레지오 교육은 기록작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해석을 존중한다. 기록작업은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라면 볼 수 있는 열려 있는 자료이다(Rinaldi, 2006/2017). 레지오 교육에서는 기록작업을 영유아교육 기관의 현관, 복도, 계단, 교실 등에 게시하여 기관에 방문하는 사람들 누구나 그 공간에서 만들어 지고 있는 영유아의 학습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Project Zero & Reggio Children, 2005). 뿐만 아니라 기록작업을 책자로 편집하여 이를 여러 언어로 번역 출판하고 있으며, 전시회를 통해서도 레지오 교육 및 영유아의 학습 과정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Edward, et. al., 2006). 기록작업은 교육과정의 실천이자 교육과정 실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나누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기록작업은 여러 사람에게 읽히기 때문에 가독성이 중요하다(Rinaldi, 2006/2017; Vecchi, 2010). 여기서 말하는 가독성이란 기록작업을 보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유혜령, 2012). 그렇기 때문에 기록작업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체크리스트와 같이 구조화된 형식을 띄지 않으며 이야기

형식으로 작성된다(Rinaldi, 2006/2017). 이야기로 작성된 기록작업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의문이 생겨나게도 한다(Rinaldi, 2006/2017; Turner & Wilson, 2009). 즉 기록작업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름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어 소통이 일어나도록 한다.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은 영유아, 동료 교사, 부모와 소통에도 활용된다. 기록작업은 영유아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게 한다. 영유아는 기록작업에 있는 자신의 놀이를 돌아보고, 오늘의 놀이를 계획한다(Sellers, 2018). 기록작업에 있는 다른 어린이의 놀이와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놀이를 이어가기도 한다. 더불어 영유아는 기록작업을 통해 자신이 하는 것을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귀 기울이고 있는지 느낀다(Project Zero & Reggio Children, 2005). 레지오 교육은 교사의 주관적 해석인 기록작업을 다른 동료교사와 나눔으로써, 상호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김희연, 2008; 유혜령, 2012). 한 사람의 해석이 아닌 여러 사람의 해석으로 영유아의 놀이,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주체로서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기록작업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배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교육 주체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김희연 외, 2005). 이처럼 레지오 교육에서 기록작업은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에서 배움의 의미를 찾고, 이를 표현하는 텍스트이다. 또한 이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해석하는 것을 존중하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나누고 있다.

그러나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에서 교사 해석의 강조와 다른 사람과 소통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의미 부여는 교사들에게 기록작업을 시도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교사들은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을 보며 영유아의 놀이에 과도한 해석을 부여하기도 하고, 과도한 해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김은숙, 한미라, 2009; 박소연, 2017; Lee-Hammond & Bjervås, 2020). 또한 기록작업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소통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점차 보여주기 식의 기록을 하게 되거나, 기록작업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관행의 일부가 되는 문제가 나타났다(정효진, 배지희, 2019; Albin-Clark, 2020).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달리 북유럽 국가들은 ‘교육적’ 기록작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기록작업이 교사 성찰(reflection)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될 때, 이를 교육적이라고 본다(Dahlberg, et. al., 2016; Lee-Hammond & Bjervås, 2020; Vallberg, 2012). 기존의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이들의 교육적 기록작업을 구분하는 것은 활용에서 ‘성찰(reflection)’의 강조인 것이다(Lee-Hammond & Bjervås, 2020).

교육적 기록작업은 “교육적 실천을 반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겨진다(Dahlberg, et al., 2016, 325). 교육적 기록작업은 교사의 교육적 실천을 반성하고 추후 어떤 교육적 실천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기록작업은 영유아의 학습 과정을 남기고 의미 부여하는 행위에서 넘어서서, 교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본인의 교육적 실천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이들은 반성적 성찰을 통해 교육적 실천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적 기록작업에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Hostyn, Mäkitalo, Hakari & Vandenbussche, 2020).

교육적 기록작업은 교사의 교육적 실천 즉, 전문성 발달(professional development: PD)과 관련지어 다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교육적 기록작업이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도구로 여겨졌다(Löfgren, 2017). 교육적 기록작업을 통한 교사들이 성찰이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Knauf, 2020; OECD, 2011). 교사들은 교육적 기록작업을 하며 영유아의 학습과 배움에 대해 알아가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적 전략 등을 배운다(Löfgren, 2017). 교육적 기록작업은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를 이해하는 것, 영유아의 놀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 등의 교육적 실천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교육적 기록작업은 성찰을 넘어서 교사가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자기 배려가 가능하게 한다(신은미, 2019; Dahlberg, et al., 2016). 자기 배려란 Foucault의 개념으로 “권력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자신을 돌보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방식”이다(Foucault, 1982/1994, 신은미, 2019, p.342에서 재인용). 자기 배려란 스스로를 능동적이고 주체로 형성하는 삶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허영주, 2013, 351). 인간은 자기 배려의 실천을 통해 권력에 의해 강요된 존재가 아니라 외부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이주호, 조상식, 2014, 1010). 교사가 자기 배려를 한다는 것은 주체로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 담론, 지식, 제도 등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말한다(신은미, 2019; 최유리, 허예지, 소경희, 2017). 즉, 교육적 기록작업은 교사의 교육적 실천이 담김으로써 교사가 이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적 기록작업은 교사가 동료 교사들과 함께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강조한다. 함께 교육적 실천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혼자 성찰을 하는 것보다 교사의 전문성을 가시화 하고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본다(Hostyn, et al., 2020). 이때, 교사의 성찰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해야 교육적 실천에 즉각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교육적 기록작

업은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달리 교사의 ‘성찰’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성찰을 통한 교육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교육적 기록작업에서 교사의 반성적 성찰을 강조하는 것은 교사가 자신의 교육적 실천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지만 반성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사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반성, 예를 들어 교사의 발문과 활동 계획에 대한 반성만을 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을 되돌아보는 등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기록작업에 머물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반성적 성찰은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배움이 무엇인지 의미 짓기보다 교사의 교육적 실천에 초점을 둠으로써 다시금 교사의 행위에만 집중 할 위험이 존재한다.

3.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 교육과정 실행 그 자체로서 관찰과 기록

개정 누리과정은 이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던 영유아와 관찰과 다르게 교사에게 영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놀이 관찰과 기록을 할 것을 제안한다.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놀이 관찰과 기록은 교육과정 실행의 총체임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영유아의 놀이(배움)에 대한 이해로서 관찰과 놀이 기록 목적과 방법, 마지막으로 놀이 관찰과 기록 활용의 측면에서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1) 관찰과 기록의 목적과 내용: 사건(events)으로서 영유아와 놀이(배움)에 대한 ‘이해’

개정 누리과정은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다.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사중심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영유아를 중심으로 하는, 영유아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놀이”를 최우선으로 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2019b; 보건복지부, 2020; 임부연 외, 2021). 교육과정은 영유아의 주도적인 놀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의 실천은 영유아가 주도적으로 하는 놀이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영유아가 주도적으로 하는 놀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영유아의 존재, 놀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를 살펴보면, “놀이는 유아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유아가 세상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방식”이며, “유아는 온몸의 감각과 기억

으로 자연과 세상을 만나다”고 명시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13). 이는 영유아가 자연, 세상을 만나며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존재임을 뜻한다. 특히 존재론적 관점에서 영유아를 자연, 세상과 만나며 계속해서 변이·생성하는 존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놀이에서 배움을 이해하기 위하여 놀이 관찰과 기록을 한다. 놀이는 유아, 교실, 놀이 자료 혹은 유아, 교실, 바깥 놀이터 등이 만나는 순간 생성된다. 하지만, 놀이 시간이 끝나거나 영유아가 하원을 하면 놀이는 사라진다. 이때 사라진다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존속하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정우, 2008). 그렇기에 다음 날 아이들이 등원하면 어딘가에서 존속하던 놀이는 다시 나타나게 된다. 물론, 어제의 놀이와는 다른 놀이가 반복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유아의 놀이는 사건(events)의 성격을 지닌 배움이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의 놀이, 배움을 사건으로 여기는 것은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이 이전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영유아 관찰은 영유아의 발달이 곧 교육, 학습이라고 여기며, 영유아가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유혜령, 2012). 반면,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은 영유아의 주체적 학습을 중요하게 여긴다. 영유아는 선결정된 과정에 따라 발달해 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하는 유능한 존재로 여긴다(Edwards, et. al., 2006).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개정 누리과정은 영유아가 마주하는 환경, 물질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서의 놀이, 배움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교수자/학습자, 사람/물질 등의 이분법적 구분을 지양하고, 이들이 상호적 관계를 맺으며 그 사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주목하는 존재론적 관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Lenz Taguchi, 2010/2018).

영유아의 놀이는 사건이기에 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사건으로서 놀이는 우리 눈에 명확하게 그 실체가 드러나지도 않을뿐더러, 동일성을 가진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영유아의 놀이를 기록하여 물질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 개정누리과정과 놀이이해자료집에서도 이러한 사건으로서 놀이를 이해하는 시작으로 영유아의 놀이에 귀 기울이고 관찰하여 이를 기록하는 것을 제시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2019b). 사건으로서 영유아의 놀이가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이하는지를 기록으로 드러냄으로써 영유아의 놀이를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은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서의 영유아의 놀이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

는 방법이다(Olsson, 2017).

뿐만 아니라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를 살펴보면, 놀이 기록이 교사의 자율성, 계획서 작성, 영유아 평가에 대한 설명 전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교사는 놀이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놀이 안에서 영유아의 배움을 발견하고, 이에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놀이 기록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점이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영유아가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배움에 교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곧 놀이 관찰과 기록이라는 점에서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이를 배움으로 의미 지을 수 있어야 한다. 해설서와 놀이이해 자료집에서는 이를 영유아의 ‘놀이 경험 이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2019b). 영유아의 놀이가 곧 배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배움은 교사가 포착하고 해석한 경험이다. 이는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에서 영유아의 주체적인 지식 구성과정을 학습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드러내는 것과 달리, 존재론적 관점에서 영유아의 놀이 안에서 발현하는 배움의 순간을 포착하고 영유아의 놀이와 배움에 대한 교사의 의미 짓기를 영유아에 대한 이해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관찰과 기록 방법: 교사의 교육적 실천을 불러오는 물질

개정 누리과정은 간단한 글, 사진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기록할 것을 제안한다. 해설서는 “메모나 사진 등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기록”할 것을 제안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54). 또한 기록의 한 형태인 놀이이해자료집에서도 영유아의 사진, 그림, 말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b). 이는 이전에 영유아 관찰처럼 오직 객관적으로 관찰된 것만을 글로 기록하는 것을 벗어나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같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가 유아의 놀이가 담긴 글, 사진, 그림 등과 만나며 새로운 생각이 생성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놀이이해자료집을 보면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 경험을 “짧은 2~3줄의 문장이나 몇 장의 사진 등을 남길” 수 있다고 제시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b, 29). 그리고 이 글과 사진에는 영유아의 배움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 누리과정의 제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놀이 기록의 예시를 살펴보면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

찰과 기록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 그림 4는 임부연 외(2021)가 제시한 놀이 기록 예시이다.

사례 놀이관찰을 활용하여 일일계획안 작성하기			
일일교육계획			
주제	우리 반 친구들과 친해지기	날짜	2020년 0월 0일(수)
일과시간	09:00 ~ 09:40 오전 자유놀이 09:40 ~ 10:00 인사 및 하루 일과 소개 10:00 ~ 10:20 함께 놀이한 친구에 대해 소개하기 10:20 ~ 11:30 자유놀이 11:30 ~ 12:30 점심식사 및 양치지도 12:30 ~ 13:10 바깥놀이		
사전활동 및 놀이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어떤 친구와 친해지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같은 것을 좋아하는 친구에 대해 말하기 시작함 ◆ 팡이를 잘 만드는 친구, 나랑 가까이 있는 친구, 친절한 친구, 놀이했을 때 재미있는 친구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으며 팡이놀이 같은 경우 월요일부터 계속적으로 놀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음. 		
놀이 및 활동			
관찰기록에 기반한 유아의 놀이 모습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며칠 동안 계속 팡이 꾸미기가 이어지자 교사도 함께 들어가 놀이했고, 이때 유아들은 자신이 각자가 만들 수 있는 팡이를 자랑하며 친구와 다른 점과 자신이 만든 팡이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떠들썩해지기 시작했다.</p> <p>채원 : 선생님, 이거 봐봐요. 이것도 팡이에요. 민수 : 선생님, 저는 팡이를 이렇게 만들어요. 십자가 모양이에요. 채원 : 선생님, 저 다른 것도 만들 수 있는데 보여줄게요. 교사 : 어떤 걸로 팡이를 만들 수 있는 거야?</p>		

	<p>채원 : 큐브로 엄청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희서 : 어? 나도 예쁜 팽이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봐봐~ 날개가 있어.</p> <p>용호가 "내 팽이는 여기에 놔주고 싶어요"라며 그 팽이를 계속적으로 전시하고 싶어 하였다. 시원이가 '팽이를 놓을 수 있는 집을 만들면 된다'고 제안하며 팽이 집을 만드는 유아들이 늘어났다. 시원이는 '팽이 집을 만들면 팽이가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생긴다'며 좋아한다.</p>
놀이 이해	<p>팽이놀이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히 팽이를 잘 돌리는 장소 찾기와 잘 돌리는 기술에 대한 관심에서 팽이 꾸미기로 놀이가 다시 변화해 가며, 소근육을 사용하는 기술과 팽이를 섬세하게 돌리는 손과 팔의 움직임에 대한 몰입과 조절능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팽이 꾸미기는 미술활동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색, 모양, 형태 등에 대한 예술적 요소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음도 볼 수 있다.</p>
지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팽이집 만들 자료 찾아보기(유아들과 참고 방문하여 자료 선택하기) ◆ 우리 반 친구들이 만든 다양한 팽이 작품 모습 소개하기(팽이 놀이 사진 게시) ◆ 친구 이름표 읽어보도록 격려하기

[그림 4]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 예시

출처: 임부연 외(2021). 유아·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 경기: 공동체, p286~287에서 발췌

위의 예시는 놀이 기록의 하나의 예시일 뿐 그 형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내용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위의 예시에는 영유아의 놀이가 영유아의 말, 사진, 글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교사의 '놀이 이해' 즉, 영유아의 배움에 대한 의미 부여가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에 있는 영유아의 놀이 경험에 대한 글과 몇 장의 사진이 교사로 하여금 영유아의 배움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사진과 글에 담긴 영유아의 경험이 교사로 하여금 유아의 배움을 이해하고, 사고를 생성하게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은 최근 기록에 대한 연구들 중 사진, 글, 그림 등을 물질로 여기며 이들의 행위주체성을 강조하는 관점과 그 맥을 같이한다. 이는 기록작업이 이미지로서 그 의미가 부여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Lenz Taguchi, 2017).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Lenz Taguchi(2017)는 놀이 기록을 행위주체성을 가진 물질로 여기며, 기록과 교사가 마주하며 생성이 만들어짐을 강조한다. 즉, 놀이 기록의 사진, 글, 그림 그리고 그 기록 자체가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 배움에 대해 사진을 찍고 글을 쓸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하며 이해를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Davies, 2017; Olsson, 2017). 여러 언어로 영유아의 배움이 가시화된 놀이 기록은 교사가 예상하지 못한 교육적 실천을 행하게 하기도 한다(이경화, 2019). 그림 4를 보면 교사의 교육적 지원이 적혀있다. 즉, 교사는

영유아의 사진, 글, 그림 등을 사용하여 영유아의 놀이를 표현하고 이를 교사의 언어로 배움을 의미 짓고,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의 교육적 실천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이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은 레지오 기록작업의 방법에서 더 나아가게 된다.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이 그 상황에 있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개정 누리과정의 관찰과 기록은 더 나아가 기록을 구성하는 사진, 글, 그림 등의 물질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교사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 행위 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에서는 교사의 교육적 실천을 기록하지 않고 영유아의 학습과정만을 드러낸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의 활용 측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3) 관찰과 기록 활용: 이해와 실천을 반복하는 교육적 실천 그 자체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 관찰과 기록을 동료 교사, 부모와 나누며 소통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레지오 교육이 영유아의 학습에 대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기록작업을 사용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개정 누리과정은 영유아의 놀이(배움)에 대한 소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사의 교육적 실천 그 자체로 기록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 관찰과 기록을 통한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자율성으로서 교육적 실천을 강조한다. 놀이 기록의 목적을 영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지원을 자유롭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해설서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안 형식과 방법의 자율화”가 있다. 이 부분에서 개정 누리과정에서 놀이 관찰과 기록을 어떠한 의미로 바라보는지 유추할 수 있다.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사가 계획안을 사전에 작성하는 방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교사는 사전 계획을 최소화함으로써 유아가 실제 놀이하는 내용과 교사의 지원 계획을 자율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계획안을 개선해 갈 수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19).”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 관찰과 기록을 영유아의 놀이 내용 즉 배움과 교사의 지원 계획을 적는 계획안의 개선 방안으로 여기고 있다(임부연 외, 2021). 하지만 여기에 숨은 의미는 놀이 관찰과 기록을 통한 교사의 교육적 실천(praxis)의 강조라고 볼 수 있다. 기존 계획안은 영유아의 놀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교사의 일방적인 활동 계획들이 작성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교사들의 교수 행위는 계획을 통해 계획되고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계획안에 영유아의 놀이 내용, 다시 말하면 교사가 포착한 영유아의 배움을 작성하고, 그에 적절한 지원 계획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재개념화함으로써 교사의 교육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놀이 관찰과 기록을 계획안 특히 일일교육계획안과 통합하게 되면 교사는 영유아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교육적 실천을 하게 된다(임부연 외, 2021). 교육적 실천이란 영유아의 놀이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위하는 것, 그리고 다시 행위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다시 행위하는 것이다(이경화, 2019). 즉, 이해와 실천이 반복되는 지속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일일교육계획안은 교사들이 그동안 매일 작성하며 교수 행위를 계획해 왔던 문서이다. 이를 놀이 기록으로 통합함으로써 영유아의 놀이를 매일 기록하여 배움을 의미 지으며 그에 따른 지원 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영유아의 놀이에 대한 이해는 교사가 다음의 교육적 실천을 선택하게 한다. 즉 교육적 실천은 이해에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유혜령, 2021b).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여 기록해 두면 교사는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되며, 하나의 정답이 아닌 여러 의문이 생성되는 것을 경험한다(유혜령, 2012). 그리고 영유아의 배움을 놀이 기록에 작성하는 것으로 의미 지음으로써, 그 후의 실천이 생성된다. 따라서 놀이 관찰과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이 영유아 놀이에 대한 교사의 과도한 의미부여로 오인되지 않고 사건으로서의 영유아의 놀이를 사진, 글(영유아의 말), 그림 등 여러 언어들을 사용하여 영유아의 배움을 의미 짓는 것이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2019b; 임부연 외, 2021).

Ⅲ. 나가며

본 연구는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에

서 관찰과 기록의 의미 차이를 탐구하였다. 영유아 교육에서 오랜 시간 사용되어 온 영유아 관찰과 이에 대항하는 한 축으로 존재하였던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 그리고 개정 누리과정과 4차 표준보육과정의 시행으로 새롭게 등장한 놀이 관찰과 기록까지 영유아를 관찰하고 기록한다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관찰과 기록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의 차이를 관찰과 기록의 목적과 내용 즉 무엇을 왜 관찰하는지, 방법 즉 어떻게 기록하는지, 기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관찰의 목적과 내용 측면에서 차이를 살펴보았다. 영유아 관찰의 목적은 선결정된 발달 단계에 따른 영유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데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희진 외, 2018; 임부연 외, 2021; 이경화 외, 2020; Dahlberg, et. al., 2013/2016; Lenz Taguchi, 2010/2018). 따라서 관찰의 내용은 영유아의 상태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과 내용 요소에 맞추어 져 있다. 반면 레지오의 기록작업은 영유아의 학습 과정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관찰하고 그 내용을 남긴다. 영유아가 놀이를 하며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 과정에 귀 기울인다(유혜령, 2012; Project Zero & Reggio Children, 2005).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규준에 맞추어 영유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시선에서 이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뜻한다(Rinaldi, 2006/2017). 또한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적 기록작업은 기록작업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영유아와 함께 하며, 함께 길을 잃는 발현적 귀 기울이기로서 관찰을 행하여 교사의 실천을 목적에 두고 기록하고 있다(Davies, 2017). 이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자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며 서로를 변화 시킬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영유아를 바라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은 영유아에 대한 발현적 귀 기울이기와 함께 영유아의 놀이, 배움을 사건으로 봄으로써 이를 포착하고 의미 짓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듯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에서 영유아를 관찰한다는 것은 규준에 따른 객관적 관찰이 아닌 영유아의 배움을 영유아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사건으로서 놀이, 배움을 이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에 귀 기울이고, 사건으로서 영유아의 놀이를 배움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b). 이경화(2019)는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하는 교사가 영유아의

배움에 귀 기울이고, 영유아와 만나며 회절하는 역량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회절이란 영유아의 배움에 귀 기울이고 이로 인해 자신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으로 발현적 귀 기울이기와 다르지 않다. 즉, 교사는 영유아의 배움을 포착하고, 귀 기울이는 놀이 기록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록 방법의 측면에서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교육적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의 차이가 드러났다. 영유아 관찰 기록은 객관적인 관찰과 형식화 되어 있는 기술 방식을 강조하였다. 영유아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를 그대로 기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김희진 외, 2018). 또한 영유아 관찰 방법을 형식화하고 형식대로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내용은 관찰 문장iform으로만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은 영유아의 놀이 모습을 사진, 글, 그림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여 이미지로 표현하였다(Vecchi, 2010). 또한 기록작업을 보는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가독성 있는 기록을 중요시한다(Rinaldi, 2006/2017).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은 교사의 교육적 실천을 기록하지 않는다.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은 기록작업과 마찬가지로 영유아의 놀이(배움)를 사진, 글, 그림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여 남긴다. 그리고 이들의 행위주체성을 인정하며 사진, 글, 그림 등을 통해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배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긴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b).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놀이(배움)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교사의 교육적 실천을 생성하게 되고, 이를 놀이 기록에 적어 둘 것을 제안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임부연 외, 2021). 교사의 교육적 실천을 작성함으로써, 교사의 지원과 영유아가 만나 놀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생성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차이가 발생한다.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은 교사가 교실에서 마주하는 영유아의 놀이(배움)의 순간을 포착하고, 다양한 물질(사진, 글, 그림 등)로 남기게 하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2019b; Lenz Taguchi, 2010/2018). 또한 교사의 관찰과 기록은 물질로서 교사에게 작용하는 것을 감각하게 된다. 영유아의 모습이 담긴 사진, 글, 그림 등은 교사에게 힘을 발휘하여 교사가 영유아와 함께 놀이 할 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영유아의 배움을 포착하게 하거나, 교사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지원을 계획하고 실천하게 할 수 있다(Merewether, 2018). 따라서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 관찰과 기록 자체도 행위주체성을 가진 물질로 교사간에도 작용함을 인정한다.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은 교사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록작업을 공유하는 상호주관성을 강조하는데(김희연, 2008; 유혜령,

2012) 그치고 있으나,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은 다른 사람의 놀이 기록 그 자체가 교사에게 영향을 미치며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찰과 기록 활용의 측면에서도 영유아 관찰 기록,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은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 관찰 기록은 영유아의 발달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유아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교육 계획을 세우는데 기록을 활용하였다(이진희, 2020). 그에 반해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은 영유아, 동료 교사, 부모들과 영유아의 학습을 나누고 소통하는데 기록작업을 사용하였다(김희연 외, 2005). 뿐만 아니라 교육적 기록작업은 이를 통한 교사의 성찰을 강조하기도 하였다(신은미, 2019). 그러나 기록작업을 통한 소통과 교사의 성찰 강조는 교사의 업무 부담과 과도한 해석을 불러오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의 자율적 교육과정 실행으로 놀이 관찰과 기록을 의미 짓는다. 다시 말하면, 교사는 놀이 관찰과 기록을 하며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놀이 기록의 행위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 놀이 기록이 교사로 하여금 영유아의 놀이(배움)을 이해하고, 교육적 지원을 하며, 다시금 실천에 따른 영유아 놀이(배움)의 변화를 포착하게 한다. 즉,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은 교사의 실천 행위와 비판적 사유가 반복되며 교육과정 실행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영유아교육에 혼재되고 있었던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의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 관찰과 기록의 행위주체성을 인식하고, 놀이 기록이 교사에게 작용하며 교육과정을 실행하게 하는 ‘교육과정 실행의 총제’임을 강조하고 있다(임부연 외, 2021). 따라서 영유아교육에서 놀이 기록은 더 이상 영유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평가하거나, 영유아의 학습에 대한 교사의 해석을 강조하고 이를 통한 교사의 반성적 성찰을 강조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교사는 놀이 기록을 짧게라도 지속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영유아의 놀이 사진, 글, 그림 등이 축적되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기도 하고, 매일 벌어지는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영유아의 놀이에 따른 지원을 하고, 다시 지원에 따라 영유아의 놀이가 어떠한 사건으로 나타나는지 귀 기울이고 기록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교사는 영유아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임부연, 손연주, 2019).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영유아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을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교육적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

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교사들이 놀이 기록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이 행위주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교육과정 실행의 총체로서 놀이 기록을 바라보며, 영유아교육 현장에서 놀이 기록이 교사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 누리과정 놀이 기록 관련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세종: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교육부(2020). **관찰기록 안내서**. 세종: 교육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2019a).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2019b).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이해자료집**.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2019c).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실행자료집**.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 김경숙, 강은영(2020). “영유아 관찰 및 행동 연구”의 수업 개선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관찰역량 변화 탐색. **한국유아교육연구**, 22(4), 100-127. doi:10.15409/riece.2020.22.4.5
- 김정철, 김안나(2009). 기록 작업을 통한 교사의 귀 기울이기.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67-89.
- 김보은(2014). 기록작업을 하는 유아교사의 교수지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 한미라(2009). 레지오 에밀리아 적용 유치원 교사들의 기록에 대한 인식. **교육이론과 실천**, 18, 47-79.
- 김태인, 유은영(2010). 예비교사의 유아관찰 경험의 의미: 부적응 유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4(2), 341-368.
- 김은희(2011). 유치원 교실에서 기록의 의미 알아가기: 3 세반 두 교사의 기록 공유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5(1), 67-98.
- _____(2012). 민주주의 교육 실천으로서 기록의 의미: 4 세반 두 교사의 기록 공유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6(6), 463-488.
- 김희연(2008). 기록작업 (documentation) 의 의미에 대한 재조명: 21 세기 한국 유아교육의 공공성 구성을 위한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3(1), 79-102.
- 김희연, 정선아, 오문자(2005). 기록작업을 매개로 한 부모참여에 관한 실행연구: 학습공동체를 지향하며. **유아교육연구**, 25(6), 221-254.
- 김희진, 박은혜, 이지현(2018).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관찰**. 서울: 창지사.
- 나귀옥, 김경희(2012). 누리과정 실행에 따른 유아평가의 방향 탐색. **유아교육연구**, 32(4), 465-492.

doi:10.18023/kjece.2012.32.4.020

노연서(2018). 교육현장이 다른 교사와 나의 레지오 기록작업 함께 읽기.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소연(2017). 유아의 놀이를 기록하는 교사의 경험.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2014).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송연숙(2019).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한 좋은 아동관찰에 대한 은유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18(3), 127-149.

doi:10.30761/ecoece.2019.18.3.127

신나리, 오정순(2013). 유아관찰기록척도 (K-COR-II) 타당화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6), 309-337.

신은미(2019). 푸코의 자기배려에 대한 소고: 유아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을 중심으로.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9(4), 341-358. doi:10.21024/pnuedi.29.4.201912.341

안부금, 김평호(2017). 자가진단 루브릭에 근거한 피드백 전략이 예비유아교사의 일화기록 작성능력과 반성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3), 363-387.

오문자(1997).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1, 109-115.

유혜령(1997). 현대 해석학의 관점에서 본 아동 이해의 문제. **아동교육**, 6(1), 96-110.

_____(2012). 해석학적 텍스트로서의 레지오 기록의 의미: 교육적 불안과 희망의 양면성. **유아교육연구**, 32(5), 415-433. doi:10.18023/kjece.2012.32.5.019

_____(2021a). 구조주의 및 후기구조주의의 사조의 등장과 근대적 주체의 해체. 한국어린이교육문화비평학회 2021년도 1차 특별세미나 자료집. 1-6.

_____(2021b). 교육과정 개발에서 이해로. 한국어린이교육문화비평학회 2021년도 1차 특별세미나 자료집. 1-5.

이경화(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의 성격과 그 실천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량 탐색. **어린이교육비평**, 9(2), 5-33. doi:10.26834/ksce.2019.9.2.5

이경화, 구옥선, 김미진, 김병만, 김성숙, 류주영, 박지영, 서보순, 손유진, 이진희, 정혜영, 홍성희, 최고은 (2020). 유아 관찰 및 기록 자료 개발. 2019 개정누리과정 후속조치 연구보고서. 세종: 교육부.

이정우(2008). **천하나의 고원: 소수자 윤리학을 위하여**. 서울: 돌베개.

이주호, 조상식(2014). 미셸 푸코의 “자기배려” 개념과 교육적 담론의 복원. **교육철학연구**, 36(1), 99-118.

이진희(2020). 배움을 ‘위한’사회문화적 유아평가의 탐색: 방법론적 개인주의 벗어나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791-815. doi:10.22251/jlcci.2020.20.11.791

임부연, 곽승주, 권혜진, 김성숙, 서보순, 손은실, 신은미, 연희정, 염지숙, 오채선, 윤민아, 이경화, 이연선, 이현진, 장혜진, 정선아(2021). **유아·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 서울: 공동체.

임부연, 손연주(2019). 유아교육과정의 맥락 속에서 살펴본 ‘놀이~ 배움’의 의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3), 265-287. doi:10.22251/jlcci.2019.19.3.265

임진영, 박선희(2010). 기록작업을 통한 유아교사의 사고와 행동의 변화. **열린교육연구**, 18, 229-253.

정선아(2015). 한국 유아교육에서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의 위상. 한국어린이교육문화비평학회 2014 연차

학술대회 자료집. 33-49.

정선아(2001). G. Stanley Hall 의 아동연구 발달주의 (Child-Study Developmentalism) 의 의미. **유아교육연구**, 21(4), 481-496.

정윤진, 장세라, 고은혜, 박병기(2016). 유아 관찰기록의 내용분석: 누리과정과 관찰기록의 대응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5(4), 351-367. doi:10.17643/KJCE.2016.25.4.18

정효진, 배지희(2019). 레지오 에밀리아를 적용하는 도담유치원 경력교사들의 기록작업에 대한 탐색. **육아지원연구**, 14(1), 115-148. doi:10.16978/ecec.2019.14.1.005

최유리, 허예지, 소경희(2017). 교육과정 자율화 논의에 가정된 교사 자율성 재개념화: Foucault 의자기 배려논의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연구**, 35(2), 119-141.

허영주(2013). Noddings 와 Foucault 이론의 비교 분석을 통한자기배려 교육의 방향 정립. **교육사상연구**, 27(3), 349-375. doi:10.17283/jkedi.2013.27.3.349

Albin-Clark, J. (2020). What is documentation do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shifting from and between the meanings and actions of documentation practices. *Contemporary Issues in Early Childhood*, 1463949120917157.

Chung, S., Park, B. Y. & Kim, H. J. (2017). A critical analysis on discourses of the Reggio Emilia Approach in Korea ECE. EECERA 2017.

Dahlberg, G., Moss, P., & Pence, A. (2016). **포스트모던 유아교육: 새로운 이해와 실천을 열어가기**[*Beyond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stmodern perspectives*]. (김희연 · 신옥순 · 염지숙 · 유혜령 · 정선아 공역). 서울: 창지사. (원전은 2013에 출판)

Davies, B. (2017). **어린이에게 귀 기울이기: '이기'와 '되기'**(변윤희 · 유혜령 · 윤은주 · 이경화 · 이연선 · 임부연 공역). 서울: 창지사. (원전은 2014에 출판)

Edwards, C., Gandini, L., & Forman, G. (2006). **어린이들의 수많은 언어: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아교육**. [*The Hundred of Children: The Reggio Emilia Approach Advanced Refelction, Second Edition*]. (김희진, 오문자 공역). 서울: 정민사 (원전은 1998에 출판)

Fawcett, M., & Watson, D. (2016). *Learning through child observati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Hostyn, I., Mäkitalo, A. R., Hakari, S., & Vandenbussche, L. (2020). The professional actuation of pedagogical documentation in Belgian and Finnish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90(3), 400-413.

Knauf, H. (2020). Documentation strategies: Pedagogical documen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in New Zealand and Germany.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48(1), 11-19.

_____ (2015). Styles of documentation in German early childhood education. *Early Years*, 35(3), 232-248.

Lee-Hammond, L., & Bjervås, L. L. (2020). Pedagogical documentation and systematic quality work in early childhood: Comparing practices in Western Australia and Sweden. *Contemporary Issues in Early Childhood*, 1463949120928431.

- Löfgren, H. (2017). Learning in preschool: Teachers' talk about their work with documentation in Swedish preschools.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15(2), 130-143.
- Merewether, J. (2018). Listening to young children outdoors with pedagogical documen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Years Education*, 26(3), 259-277.
- OECD (2011). *Starting Strong III*. Paris: OECD Publishing
- Olsson, L. M. (2017). **들뢰즈와 가타리를 통해 유아교육 읽기: 운동과 실험**. (이연선, 이경화, 손유진, 김영연 공역). 서울: 살림터 (원전은 2009에 출판).
- Project Zero, Reggio Children (2005). **기록작업을 통한 학습의 가시화: 개인과 집단 학습자로서의 어린이**. (오문자, 박병희, 박선희 공역). 서울: 양서원 (원전은 2001에 출판)
- Reggio Children (2002). **개미 빼고 모든 것에 그림자가 있어요**(오문자 역). 서울: 다음세대. (원전은 1999에 출판)
- Rinaldi, C. (2006/2017). *In dialogue with Reggio Emilia: Listening, researching and learning*. Psychology Press.
- Rintakorpi, K. (2016). Documenting with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pedagogical documentation as a tool for developing early childhood pedagogy and practises. *Early Years*, 36(4), 399-412.
- Taguchi, H. L. (2018). **들뢰즈와 내부작용 유아교육** [*Going beyond the theory/practice divid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troducing an intra-active pedagogy*]. (신은미, 안효진, 유혜령, 윤은주, 이진희, 임부연, 전가일, 한선아, 변윤희 공역). 서울: 창지사. (원전은 2010에 출판)
- Turner, T., & Wilson, D. G. (2009). Reflections on documentation: A discussion with thought leaders from Reggio Emilia. *Theory into Practice*, 49(1), 5-13.
- Vallberg-Roth, A. C. (2012). Different forms of assessment and documentation in Swedish preschools. *Nordisk barnehageforskning*, 5.
- van Manen, M. (2002/2012).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 [*To teach*]. (정광순, 김선영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2에 출판)
- Vecchi, V. (2010). *Art and creativity in Reggio Emilia: Exploring the role and potential of ateli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Routledge.

Abstract

The Study of Differences in Observation and Docu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Observation of children, Reggio Emilia Documentation and Observation and Document of Play in the 2019 National Nuri Curriculum

Boyoung Park & Shunah Ch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difference between observation of children, Reggio Emilia documentation and the observation and document of play spoken in the 2019 National Nuri curriculum. Accordingly, three aspects were compared: 1) the purpose and contents 2) the method and 3) the utilization. As a result, observation of children was made to explain child development status according to a predetermined framework, which was described objectively and formally. In addition, observation of children is considered to be an evaluation of child and was used as a means of developing educational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child. The Reggio Emilia documentation is to listen to the learning process of children with an open mind. The documentation was imaged using various languages such as photography, writing, and painting of children. The documentation was used as a tool for communication with children, fellow teachers, and parents, or as a tool for reflection by teachers. Finally, the 2019 National Nuri curriculum's observation and document of play captures and means the play of children as an event. It recognized the agency of the play document and believed that the observation and document of play would act on teachers so that they could understand children and carry out educational praxi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larified the meaning of observation and document by comparing differences in observation of children, Reggio Emilia documentation and observation and document of play in the 2019 National Nuri curriculum.

Keyword: Observation and Document of Play, 2019 National Nuri Curriculum, Reggio Emilia Documentation, Observation of Children

